

사설

해인골프장 '나라 망신'

나날이 숲이 사라지고 물이 오염되고 있다. 카메라가 잡아주는 그 끔찍한 광경에 잠시 눈발을 찌푸릴 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심각성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제정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라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내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동네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이를데 없다.

현실의 인간에게 불상은 강해 있다. 여래는 잠재된 씨앗일 뿐, 현재태는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는 비(悲)는 개인 자에게만 허용된 고귀한 덕목이다. 이즈음 이런 상념이 부족하다. 참으로 오락약세, 말발의 괴란(蹉跎)이 난민한 세상이다.

가야산에 골프장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좁은 땅에 골프장은 부족하고, 회원권이라도 있어야 가진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으니 골프장 건설은 땅값과 해충치는 돈 벌이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나의 행위를 개인적 이해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복지와 질서라는 보편적 척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윤리란 개인의 전체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다. 그것이 한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화되어 있는지의 궁극적 척도이다.

가야산은 남다른 산이다. 산에도 품격이 있고, 개성이 있다. 보통 산을 깎아서도 안되는데 하늘과 가까우니, 눈만 개발자들은 3.5km나 떨어져 있으니 별무상관 아니라고 우긴다.

생명은 구획되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에는 국경이 없다. 최근의 시화호는 적어도 수백킬로미터에 걸친 생태계를 오염시켰다. 대부분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고, 물고기는 반 이상이 기형이었다.

화염의 소식에 따르면, 한 계기의 영향은 백터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저쪽 반대편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실제의 참모습이다. 중국의 호랑나비 한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해안에 허리케인 태풍을 몰고 오는 법이다.

실상이 이러하거늘, 민족의 성지 코앞에 죽음의 골프장을 세우겠다니, 팔만대장경이 살아 숨쉬는 가야산은 우리 민족의 유산만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 파괴될린 빛나는 광휘요, 그런 점에서 전 인류의 유산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이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러 왔던가.

해인총림과 환경단체들이 주도 가 되어 이 폐약을 결사저지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벌써 48만 여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관계 요원에 절박한 사정을 진정하고 시민단체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유네스코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특별관리를 부탁하러 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신한국은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을 권고형식으로 하지만 사실상 금지했다. 그것은 한국의 실정에서 골프장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근원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막을 생각을 않는가.

유네스코에 재해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요청은 선진국을 코앞에 둔 일인당 GNP 만불시대의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그 수모를 무릅쓰기 전에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란 그렇게 쓰라고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민족의 성지이자 세계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열린마당

팔만대장경 보존

이태녕박사 논문요지

경관의 변형을 방지하고 칠채(漆彩)의 박리(剝離)를 피함으로써 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한 환경은 미생물 오염이나 유해 곤충에게 침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보존환경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해인사의 입지환경은 입지시대에 비해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철에는 선선하다. 또한 습도에 있어서도 사계절을 통해 주위에 비해 높은 상대습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도 높은 상대습도가 나타나는데 매우 특이한 미시적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은 큰 특징이다.

온도와 습도의 완충작용은 경관, 판가, 건물 등에 의한 수분의 흡수와 방출에 따른 습기 조절 능력과 이에 수반하는 열에너지의 발산,

미생물·곤충번식 예방 화학약품 사용 금물

흡수에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특히 판가에 조밀하게 수직으로 배열된 경관판은, 그 경관보다 약간 넓은 폭을 가진 마구리로 인하여 경관과 경관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여 일종의 굴뚝작용을 함에 따라 상승 풍기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작용은 환은 환습에 가까운 완충 조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이 경관 보존의 요체로 사료된다.

박물관에서는 입관 당시와 필요시 간헐적으로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공간의 경우는 간헐적 방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

한다고 하면, 이는 마치 농약없는 안되는 농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경관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반반한 약제 사용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간섭하여 살균 소독약에 대한 저항력을 획득한 미생물, 곤충의 전적없는 침입에 이어져 예기치 않은 미생물, 곤충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92년도에 대구묘 훈증(薰蒸) 소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간관전에 94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했던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생물 및 곤충 오염 번식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환경 미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인총림대책위 입장

해인사 산너머 능성에 '해인'이란 이름의 '해인골프장' 48만평이 건설된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삼세인과정) 속의 부처님말씀을 떠올렸다.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 되어 말발시대에 이를수록 다음의 네가지 현상이 두드러지나니, 첫째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자꾸 멀어지고, 둘째는 '부처'란 이름의 깨달았다는 이가 많고, 셋째는 생명경시가 만연함으로 방생을 해야 함이요, 넷째는 말세증상은 복이 없으므로 큰 수행자를 공양하며 복을 지어아 한다"고...

48만평의 골프장과 150만평의 위락시설이 등장한다면, 더 이상 해인사는 수도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상실한다. '가야산 해인사'는 '가야산 해인골프장'이란 이름으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드넓은 가야산 산허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리의 슬한 자연생태계가 포크레인 삽날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간 7.5의 농약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생물오염 등의 결과를 낳게 된다. 골프장이 한번 건설되면 그 이전 상태로의 자연복구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골프장 건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을 준수할 의향이 없다. 차라리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유네스코 본부에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지산 (해인총림대책위원장)

협약에는 관공개발에 의한 공사의 금지를 포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보호일부 수행에 필요한 수단의 강구를 권고하고 있다.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 일괄포'에 포함시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인총림대책위원회가 유네스코 본부에 진정서를 제출기로 한 것은 팔만대장경이 우리 불교도의 성보물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선조들의 것도, 우리들의 것도 아니다.

우린들은 문화유산에 담긴 정신과 지혜를 우리들의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해택과 함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존의 권리란이 있을 뿐이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권고 (1988년 제정)

- ▲ 2조3항: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들은 그 국가의 전체 영토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어떤 기념물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 ▲ 2조7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위한 기준들은 예방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 ▲ 2조8항: 예방적이고 정확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손상하고 파괴하는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2조8항d: 유적지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들 혹은 일련의 구조물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의 건설이나 변경.
- ▲ 2조8항g: 넓은 정기질, 배수와 관계작업, 땅의 개간과 다지기, 그리고 조립작업을 포함한 농업작업.
- ▲ 3조14항: 회원국들은 이 권고에서 구체화된 규범과 원칙에 의거하여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기준들을 법문화화거나 유지해야 한다.
- ▲ 3조15항a: 문화유산의 보호를 책임지는 정부당국이나 지방정부는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에 의해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조를 수행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3조21항: 고고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어떤 계획의 사전조사 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의 맞가지 변형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 3조27항: 회원국들은 의도적이거나 무관심으로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에 의해 위험하게 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구제에 대한 위원은 벌금이나 감옥형 또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만평



"불자가 늘었네요..."

목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옆에서 보던 엄마가 말했다.

"그 색은 하늘색이 아니잖아. 하늘은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아이의 엄마의 손을 끌어 당기며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와 함께 본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었다. 회부연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는 생각했다.

"지금도 말로 설명해줘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었네! 하늘이 오면 하늘색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지."

이제 곧 추석이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한국의 가을하늘은 그대도 가을을 상징한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하늘은 어떤가. 공해에 강하다는 서울시청 비서 서울의 가을하늘이 제 색깔이기는 쉽지 않다.

하늘이 하늘색을 잃어가는 것은 이따금 큰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이다. 얼마나 심각한 슬픈 일인가.

"하늘색을 살립시다"

돌기들조차 대기오염을 견디지 못해 어디론가 떠날 정도다. 인과이비인후과 호흡기계 환자가 예년에 비해 2배이상 늘고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스모그현상이 일상화되고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상황에

습관만큼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하늘색이 달라지고 땅이 산성화되고 수질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발동'의 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가 증가하듯 오염수치가 높아지면 우리는 서울의 하늘아래서 더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숨을 못쉬면 어떻게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담국은 이제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겨를없이 특단의 환경보호조치를 내려야 할 때이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환경운동에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하늘색을 살립시다."

새싹잡을 위한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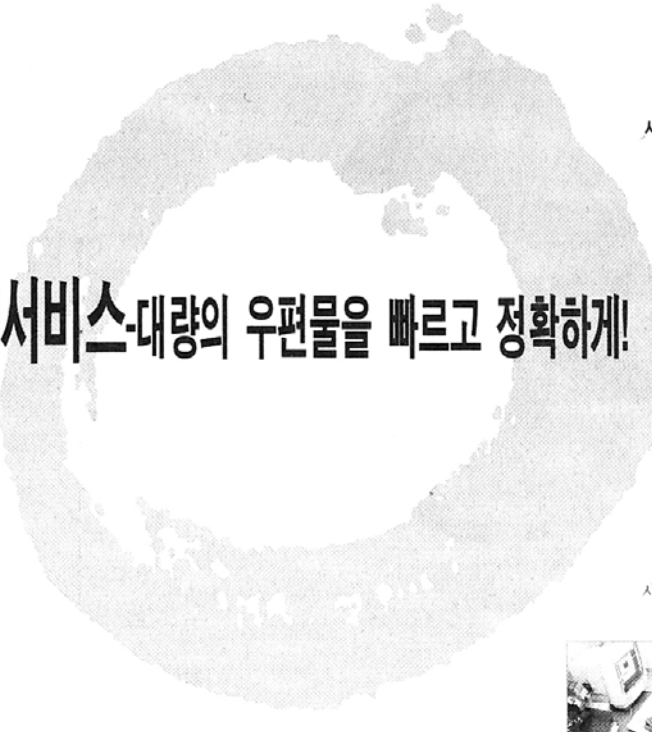
우물해진다

우물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을 해치는 일이다. 그것은 그가 근착하고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머무어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숫타니파타)

협찬 금강사 주지 자우 TEL. (02) 993-3744

신속하고 깔끔한 새로운 처원의 DM서비스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이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범죄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이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이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잡지·카탈로그·사적·카드 등 3중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비닐포장·수축포장·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